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구조개선으로 성장 모멘텀 유지·강화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금융시장 펀더멘털 견조, 외국인자금 유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여건 조성
-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원칙있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5. 14.(목)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최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식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7,000대 후반에 도달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권(top-tier)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베스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1분기 GDP 호조로 인한 국내경기 흐름 기대 등을 주로 반영하면서 상승하였지만,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우리 국채의 구조적 수요 기반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우호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환시장¹⁾ 관련,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금리 향방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및 역외 투기적 거래 증가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석자들은 외화 유동성이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WGBI 편입, 국민연금 New Framework, 국내시장 복귀계획(RIA) 등 제도 개선도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중동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들이 해소된다면 외환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수출·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사간의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서기관 이용준 (cjeye86@korea.kr)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5140)
		담당자	사무관 박중민 (pymwm@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정승환 (sh.chung@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im-tj@fss.or.kr)



1) 원/달러 환율(원/\$): (2월말)1,439.7 → (3월말)1,530.1 → (5.7)1,454.0 → (5.11)1,472.4 → (5.12)1,489.9 → (5.13)1,490.1